



[소비동향] 英 소비자 78%, '자연방목 우유' 선호

-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적 요인이 식품 구매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유업체인 퍼스트 밀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76%가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29%는 식품 구매시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3%의 소비자가 농업과 유제품 생산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인 4분의 3인 78%가 목초지 또는 자연방목을 통해 사육된 젖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유제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63%의 응답자가 젖소의 동물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와 유제품 생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204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및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영양가 풍부한 유제품을 균형 잡힌 식단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foodingredientsfirst.com, 4월 27일 >

[업계동향] 美, 식물성 대체음료 매출 15% 증가

- 던킨도너츠, 오트밀크와 아몬드 우유에 이어 코코넛밀크 추가 공급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도넛 브랜드 던킨이 미국 전역 매장에서 코코넛밀크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던킨은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커피, 차 등 음료제품에 오트밀크와 아몬드 우유를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코코넛밀크를 추가로 제공하며 다양성을 더하게 되었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유제품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대체 우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던킨은 물론 세계 최대 커피 체인회사인 스타벅스 등 식음료 업계에서는 식물성 대체식품을 활용한 메뉴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에 따르면, 비(非) 우유 제품의 판매가 15% 이상 증가한 가운데 코코넛밀크는 11%, 오트밀크 판매는 1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edition.cnn.com, 4월 2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